

2021년 하반기 거시경제 전망

| 요약 |

- 2021년 국내경제는 코로나19의 불확실성 지속이 소비 회복세를 제한하고 있지만, 대외여건의 개선에 따른 수출과 투자의 빠른 회복, 2020년 역성장의 기저효과 등으로 4.0% 성장 예상
- 대내외적으로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(백신 보급 속도,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여부 등)이 가장 큰 변수인 가운데 민간소비의 회복 속도와 고용시장 안정화 여부, 소득 여건의 개선 정도 등이 추가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
- 소비는 전년도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에 더해 해외여행을 대체하는 보복소비, 주식과 부동산 등의 자산가격 상승,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속화, 소비심리 개선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 예상
- 설비투자는 국내외 경제의 경기회복 추세와 반도체 경기호조에 따른 투자 확대에 힘입어 전년에 이어 견조한 증가세가 예상되고, 건설투자는 건물건설 회복세, 정부의 SOC 지출 확대 등의 영향으로 소폭의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
- 수출은 주요국 백신 보급으로 코로나19 영향이 완화되고,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따른 소비 증가와 제조업 업황 개선 등으로 인해 연간 19.2%의 증가율 예상

1. 국내 경기상황

■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 가속화

● 국내 실물경기는 코로나19 지속으로 소비 회복세가 미진한 모습이나, 대내외적으로 코로나 사태 진정 및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수출과 투자의 가파른 반등에 힘입어 회복세

- 민간소비가 올해 1분기에 증가(1.2%)로 전환되었으나 아직 회복세가 미약한 모습이고, 투자는 설비투자가 비교적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반면, 건설투자는 감소세가 이어지는 모습
- 수출(통관기준)은 대외여건의 개선과 국제유가 및 수출단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회복세가 올해 들어 점점 확대되는 모습

* GDP(전기비, %) : (2020.2/4) -3.2 → (3/4) 2.2 → (4/4) 1.1 → (2021.1/4) 1.7

* GDP(전년동기비, 이하 同, %) : (2020.3/4) -1.0 → (4/4) -1.1 → (2021.1/4) 1.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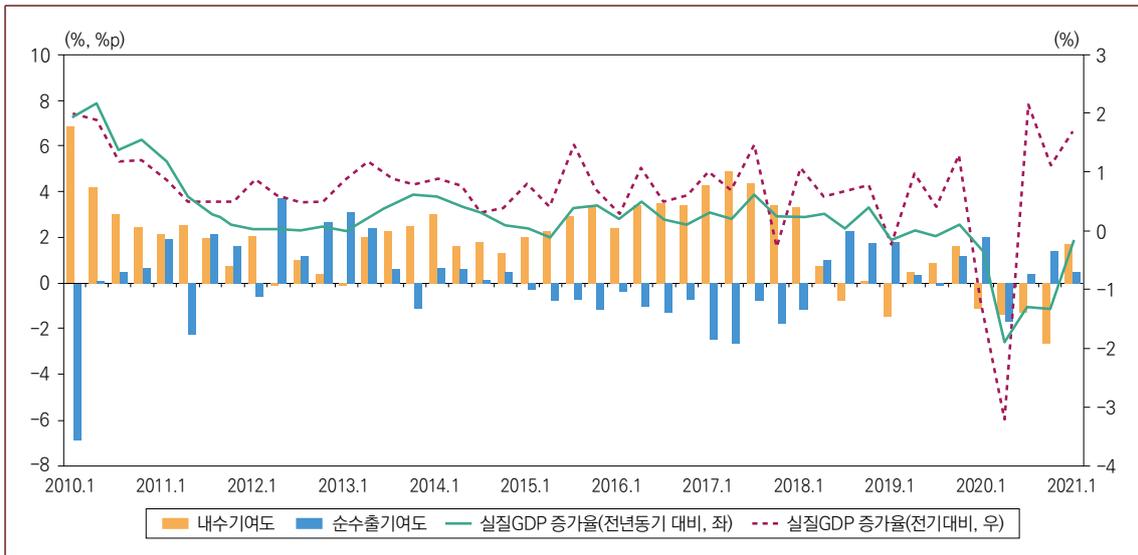
* 민간소비(%) : (2020.2/4) -4.2 → (3/4) -4.5 → (4/4) -6.6 → (2021.1/4) 1.2

* 설비투자(%) : (2020.2/4) 4.5 → (3/4) 10.7 → (4/4) 6.1 → (2021.1/4) 12.4

* 건설투자(%) : (2020.2/4) -0.4 → (3/4) -1.5 → (4/4) -2.9 → (2021.1/4) -1.8

* 통관수출(%) : (2020.2/4) -20.3 → (3/4) -3.5 → (4/4) 4.1 → (2021.1/4) 12.5

〈그림 1〉 실질GDP 성장률과 부문별 성장기여도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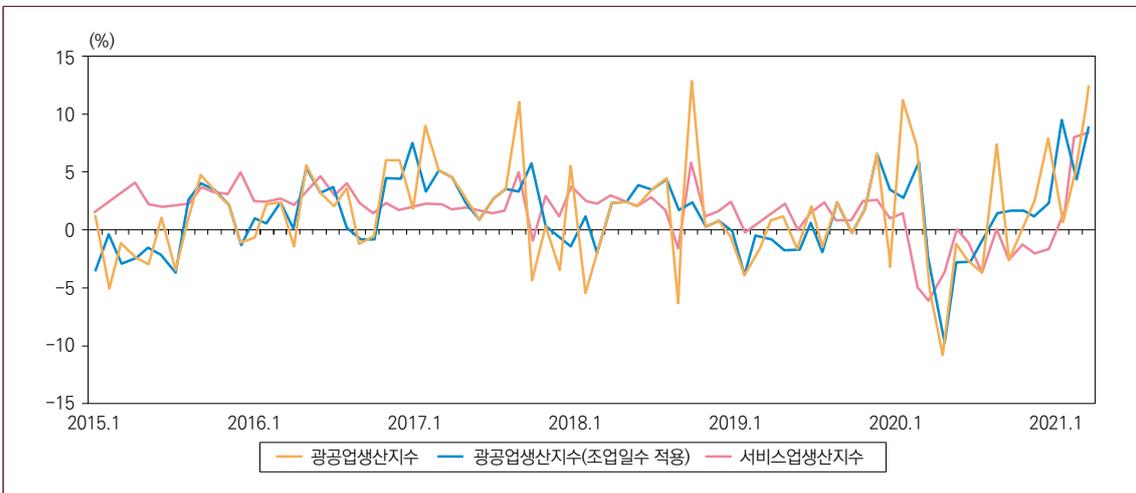


자료: 한국은행.

주: 내수는 민간소비와 총고정자본형성의 합.

-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 생산이 지난해 11월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이며, 서비스업 생산은 올해 2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서비스업의 부진도 점차 개선되는 흐름
 - * 광공업(전년동월비, %) : (2020.12월) 2.6 → (2021.1월) 7.8 → (2월) 0.8 → (3월) 4.4 → (4월) 12.4
 - * 서비스(전년동월비, %) : (2020.12월) -2.1 → (2021.1월) -1.8 → (2월) 0.8 → (3월) 7.8 → (4월) 8.4
- 경기지표는 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모두 코로나19 발생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여, 지난해 5월 저점을 기록한 이후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
 - * 선행 순환변동치 전월차: (2020.12월) 0.4 → (2021.1월) 0.3 → (2월) 0.2 → (3월) 0.3 → (4월) 0.4
 - * 동행 순환변동치 전월차: (2020.12월) 0.2 → (2021.1월) -0.3 → (2월) 0.3 → (3월) 0.5 → (4월) 1.1

〈그림 2〉 산업생산지수 증가율 추이



자료: 통계청.

〈그림 3〉 경기종합지수 추이



자료: 통계청.

2. 대외여건 전망

▣ 2021년 세계경제 : 5%대 이상의 큰 폭 성장 예상

- 2021년 세계경제는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백신 보급의 확산과 이동제한 조치의 완화, 각종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2020년의 낙폭을 만회하는 성장률 예상
 - 미국경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연준의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 등에 힘입어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, 고용 여건의 회복과 인플레 심화 여부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
 - 일본과 유로권은 이동제한 조치 등의 여파로 상대적으로 더딘 회복세가 진행 중에 있어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률의 일부를 만회할 전망이며, 중국은 내수 중심의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8%대 성장률 예상
 - 세계경기 향방의 주요 변수로는 코로나19 백신 보급의 지속 양상과 국가간·부문간 불균형 문제의 해소 여부¹⁾, 글로벌 인플레 압력의 심화 정도, 부채 누적으로 인한 정책 여력의 한계 등이 관건

〈표 1〉 세계 권역별 및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추이와 전망

단위: %, 전년동기비(전기비 연율)

	2019년	2020년		2021년	2021년 연간 전체(f)				
	연간	상반기	하반기	연간	1분기	IMF	OECD	세계은행	ADB
세 계	2.8			-3.3		6.0	5.8	5.6	-
선진권(*)	1.6	-6.3	-3.4	-4.8	-0.8	5.1	5.3	5.4	-
미 국	2.2	-4.4	-2.6	-3.5	0.4 (6.4)	6.4	6.9	6.8	6.5
유로존	1.3	-9.0	-4.4	-6.7	-1.3	4.4	4.3	4.2	4.3
일 본	0.0	-6.1	-3.4	-4.7	-1.6	3.3	2.6	2.9	2.9
신흥권	3.6			-2.2		6.7	-	6.0	-
중 국	6.0	-1.8	5.7	2.3	18.3	8.4	8.5	8.5	8.1
세계교역	0.9			-8.5		8.4	-	8.3	-

자료: IMF WEO(2021.4); OECD(2021.6); 세계은행(2021.6); ADB(2021.4).

주: 선진권의 반기별 수치는 OECD 국가들의 성장률을 의미.

1) 코로나19 이후에 국가별로는 선진국-신흥국 간, 국가 내에서는 가계-기업 간, 대기업-중소기업 간, IT-비IT 간 등 다양한 부문별로 경기 양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특징적,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강두용 외, “코로나 팬데믹 이후 1년의 한국경제”, 산업연구원 i-KIET 산업경제이슈(2021. 5. 10) 등을 참조.

■ 유가 : 전년대비 50%대 상승 전망

- 2021년 국제유가는 산유국들의 원유 감산 규모 축소에도 불구하고,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원유 수요의 가파른 증가로 상승세 예상
 - 하반기 백신 공급과 이동 제한 완화로 미국과 유럽, 중국 등을 중심으로 경기회복 및 높은 경제성장률이 예상되고, 국제 원유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
 - 반면, OPEC+ 국가의 감산 축소는 국제유가에 하방 압력 요소이지만, 점진적인 감산 완화와 미국의 부진한 원유생산으로 세계 원유 수요 증가 속도에 못 미칠 가능성
 - * IEA는 2021년 원유 수요를 99.6mb/d로, 공급을 93.4mb/d로 전망(2021.5)
 - 또한, 원유 주요 수요국인 인도의 코로나19 대응력 약화와 연준의 금리 인상 압박 및 미·중 무역 갈등 심화 등은 추가적인 유가 하방 압력 요소로 작용하여 원유 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가능성
- 2021년 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상반기 61.6달러(전년동기비 51.7% 상승), 하반기 66.5달러(전년동기비 51.9% 상승)를 기록하면서 연간 64.0달러(전년동기비 51.8% 상승)로 예상

〈표 2〉 2021년 유가 전망(국내경제 전망을 위한 전제)

단위: 달러/배럴, 기간평균

	2020			2021		
	상반기	하반기	연간	상반기	하반기	연간
두바이유	40.6 (-38.1)	43.8 (-28.8)	42.2 (-33.6)	61.6 (51.7)	66.5 (51.9)	64.0 (51.8)

주: 1) ()는 각각 전년동기비 기준, 단위 %.
2) 2021년 상반기는 6월 9일 기준.

■ 원/달러 환율 : 소폭 하락 예상

- 2021년 원/달러 환율은 당분간 상승세를 유지할 전망이다, 하반기로 갈수록 달러 강세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
 - 미국의 백신 보급과 경제회복 속도, 미국 국채금리 상승이 달러화 강세를 지지할 것이나, 하반기로 갈수록 미 국채금리의 완만한 상승세, 주요국의 백신 보급 확대에 달러화 강세가 점차 약화될 가능성
 - 백신 보급 확대에 주요국의 경제 정상화에 따른 국내 수출 증가와 하반기 안정적인 국내 백신 보급 계획 등은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

〈표 3〉 2021년 원/달러 환율 전망(국내경제 전망을 위한 전제)

단위: 원, 기간 평균

2020			2021		
상반기	하반기	연간	상반기	하반기	연간
1,207.8 (5.3)	1152.5 (-1.5)	1,180.1 (1.9)	1,118.6 (-7.6)	1,110.0 (-3.7)	1,114.3 (-5.6)

주: 1) ()는 각각 전년동기비 기준, 단위 %.
2) 2021년 상반기는 6월 9일 기준.

- 미·유럽 등 주요국의 경기부양책 실시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주요국의 금리 상승에 대한 압박감은 원/달러 하방 압력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
- 한편, 미·중 무역 갈등, 코로나19 재확산 여부 및 백신 보급 속도 등이 하반기 원/달러 환율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
- 2021년 원/달러 환율은 상반기 1,118.6원(전년동기비 7.6% 하락), 하반기 1,110원(전년동기비 3.7% 하락)을 기록하면서 연간 1,114.3원(전년동기비 5.6% 하락) 수준이 예상

3. 2021년 국내경제 전망

■ 경제성장 : 연간 성장률 4.0% 전망

- 2021년 국내경제는 코로나19의 불확실성 지속이 소비 회복세를 제한하고 있지만, 대외여건의 개선에 따른 수출과 투자의 빠른 회복, 2020년 역성장의 기저효과 등으로 4.0% 성장 예상
 - 수출이 대외경기 개선과 기저효과 등으로 2018년 이후 처음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투자는 특히 설비투자가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, 소비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증가세 예상
- 수출은 각국의 코로나19 대응력 강화로 대외수요가 확대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빠른 경기 회복세와 유가 상승 및 수출단가 상승, 기저효과 등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
 - 2021년 수출은 전년 대비 약 19.2%, 수입은 약 21.7% 증가하고, 무역흑자 규모는 전년보다 소폭 줄어든 약 417억 달러 수준 예상
- 내수는 민간소비가 코로나19의 장기화 여파에서 서서히 벗어나며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, 투자는 설비투자의 견조한 증가세와 건설투자의 증가세 전환 예상

〈표 4〉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

단위: %, 전년동기비, 억 달러

	2019	2020		2021			
	연간	상반기	하반기	연간	상반기	하반기	연간
실질GDP	2.2	-0.6	-1.0	-0.9	3.8	4.1	4.0
민간소비	2.1	-4.5	-5.6	-5.0	2.5	3.9	3.2
설비투자	-6.6	5.9	8.2	7.1	11.1	6.9	9.0
건설투자	-1.7	1.6	-2.3	-0.4	-0.5	2.5	1.1
통관 수출 (억 달러, %)	5,422 (-10.4)	2,405 (-11.3)	2,720 (0.3)	5,125 (-5.5)	3,032 (26.1)	3,078 (13.2)	6,110 (19.2)
통관 수입 (억 달러, %)	5,033 (-6.0)	2,299 (-9.0)	2,377 (-5.2)	4,676 (-7.1)	2,851 (24.0)	2,842 (19.5)	5,693 (21.7)
무역수지	389	106	342	449	181	236	417

자료: 산업연구원(KIET).

- 소비는 백신 접종 개시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과 소비활동 제약 완화, 전년도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, 코로나19로 지연된 소비 등으로 인해 3%대 증가율 예상
- 설비투자는 국내외 경제의 회복 추세와 반도체 경기호조에 따른 투자 확대에 힘입어 전년에 이어 견조한 증가가 예상되고, 건설투자는 정부의 SOC 지출 확대 등의 영향으로 소폭의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
- 2021년에도 대내외적으로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(백신 보급 속도,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여부 등)이 가장 큰 변수인 가운데 특히 대내적으로는 민간소비의 회복 속도와 고용시장 안정화 여부, 소득 여건의 개선 정도 등이 추가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

■ 소비 : 전년대비 3%대 증가 예상

- 민간소비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지난해 4분기까지 역성장한 이후, 2021년 들어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경기 회복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이른바 '보복 소비'로 이어질 조짐
 - 다만, 가계부채의 누적과 금리 인상 우려는 민간소비 확대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
- 2021년 민간소비는 전년도 감소의 기저효과에 더해 해외여행을 대체하는 보복소비, 주식과 부동산 등의 자산가격 상승,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속화,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인하여 3%대의 증가세 예상

〈그림 4〉 소비자 심리지수 추이



자료: 통계청.

〈그림 5〉 가계부채 및 대출금리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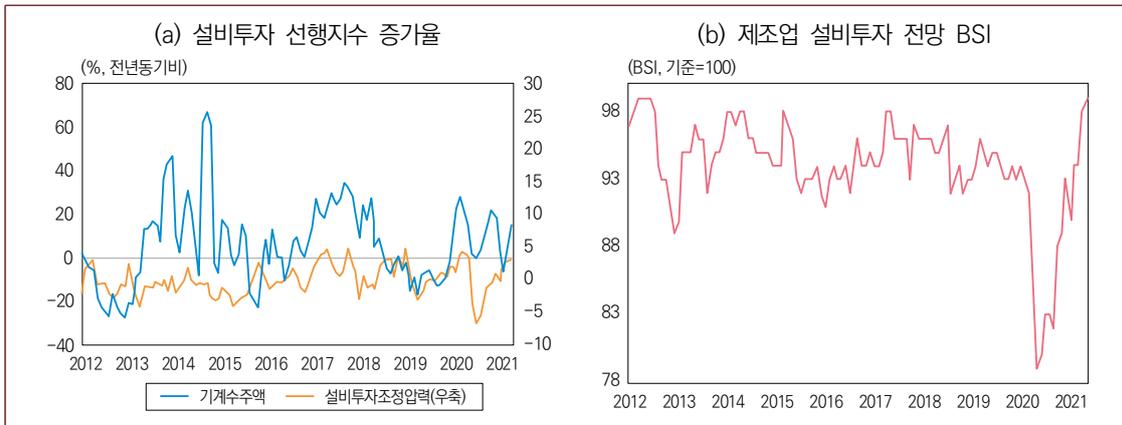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은행.

- 다만, 가계부채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금리가 인상될 경우, 가계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, 재정 확대에 의한 정부 부채 부담,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양극화 심화 등의 여건들은 소비 진작에 부정적 요인

■ 투자 : 설비투자 9.0% 증가, 건설투자 1.1% 증가 전망

- 설비투자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호조를 보이는데 이어 최근 전반적인 경기가 회복 추이를 보이면서 증가세가 확대되는 모습
- 2021년 들어서는 반도체 등 ICT 산업의 호조에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가 가세하면서 증가율이 더 높아져, 2021년 1분기 설비투자는 전년동기비 12.4%(잠정치 기준)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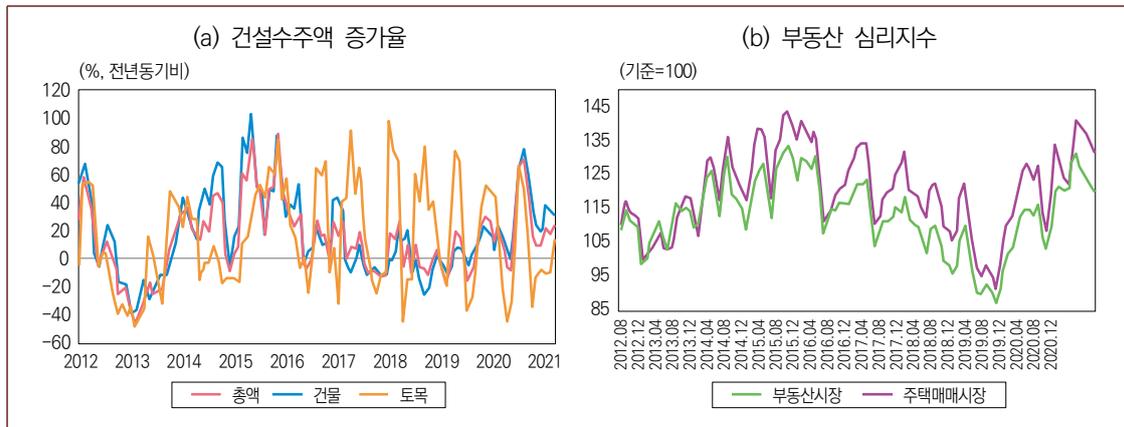
〈그림 6〉 설비투자 선행지표 추이



자료: 통계청, 한국은행.

- 1) 기계수주(불변, 선박을 제외한 국내수요)와 설비투자조정압력은 3개월 중심향 이동 평균.
- 2) 설비투자조정압력 = 제조업 생산지수 증감률 - 제조업 생산능력 증감률.
- 3) 설비투자 전망은 다음 달 전망.

〈그림 7〉 건설투자 선행지표 추이



자료: 통계청, 국토연구원.

주: 건설수주액은 3개월 중심향 이동평균.

- 2021년 설비투자는 국내외 경기 회복세와 반도체 등의 투자 확대에 힘입어 9% 내외 증가할 것으로 예상
 - 2020년에 이어 반도체를 위시한 ICT 제조업이 투자 확대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
 - 비ICT 부문 설비투자도 국내외 경기회복과 친환경·신성장 부문 투자 확대로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일 전망
- 건설투자는 건설경기 부진으로 인해 2018년 이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021년 1분기에도 여전히 부진
 - 다만, 건설수주는 2021년 1분기 27.2%(잠정치) 증가한 데 이어 4월에는 증가율이 84.2%(잠정치)로 크게 확대되면서 건설경기 회복 전망을 시사
- 2021년 건설투자는 하반기에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연간 1.1% 증가할 것으로 전망
 - 건설경기 회복세와 정부의 SOC 예산 확대 등으로 건축과 토목 모두 하반기에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, 전체적으로 건물건설이 회복세를 주도할 전망

■ 수출입 :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두 자릿수 수출 증가율 전망

- 금년 들어 수출은 전년 수출감소의 기저효과와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인한 소비 증가 및 제조업 업황 개선으로 주요 품목의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를 보이고 있고, 수입도 자본재 중심으로 증가

〈그림 8〉 수출입 증가율과 무역수지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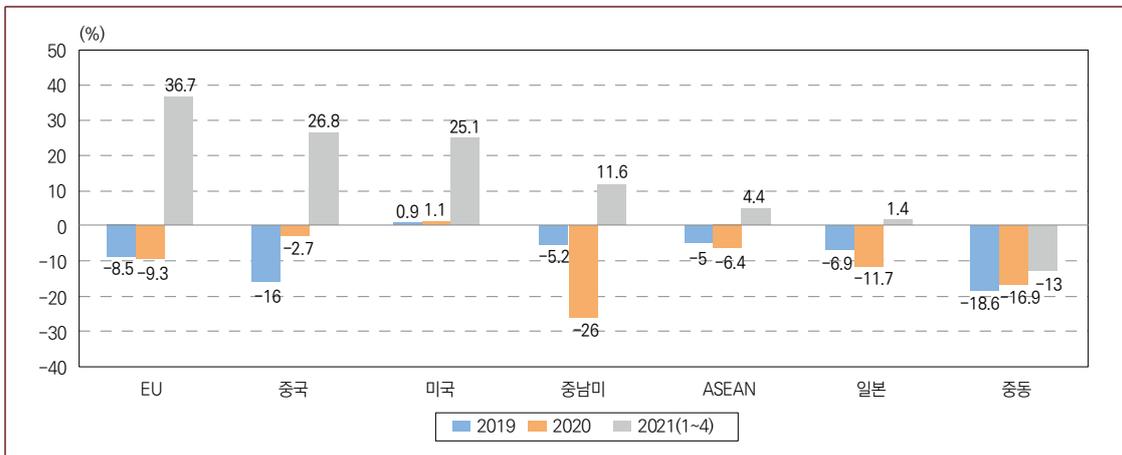
〈그림 9〉 수출단가 및 수출물량 증가율 추이



자료: 한국무역협회, 한국은행, 경제통계DB.

주: 수출단가지수는 수출금액지수를 수출물량지수로 나누어 산정.

〈그림 10〉 지역별 수출 증가율

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- 수출을 단가와 물량으로 나누어 살펴보면, 수출물량은 주요국의 경기 회복으로 지난해 4분기 부터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, 수출단가도 2021년 들어 주요 품목의 단가 상승으로 상승세 확대
- 지역별로는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인 EU·미국·중국에 대한 수출이 대폭 증가하였고, ASEAN과 일본에 대한 수출은 소폭 증가세로 전환된 반면, 중동지역에 대한 수출은 감소
- 산업별로는 대다수 품목에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특히, 단가 상승으로 인하여 반도체·자동차·석유화학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
- 수입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등 자본재 수입이 대폭 확대되고, 중간재와 소비재 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가운데 유가와 철광석 등 1차산품 수입도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크게 증가

- 2021년 수출은 주요국 백신 보급으로 코로나19 영향이 완화되고,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따른 소비 증가와 제조업 업황 개선 등으로 인하여 연간 19.2%의 증가율 예상
 - 미국과 중국 등 경기 회복세를 보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, 소비심리 개선에 따른 수요 증가와 반도체 공급 부족 및 유가 상승으로 수출단가가 상승하면서 수출 증가 예상
 - 산업별로는 친환경 자동차와 반도체 등 IT 품목의 수출 증가세 유지, 선박 인도 증가, 유가 회복에 따른 석유제품 단가 상승, 바이오/헬스 관련 수출 증가 등이 수출 증가세를 견인할 전망
 - 다만, 2020년 말 수출 회복세에 기인한 기저효과와 유럽·신흥국에서의 코로나19 재확산,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거시정책 기조 변화, 지정학적 분쟁 등의 불확실성 요인은 수출 증가 폭을 제한할 가능성
- 수입은 국제유가 상승, 기저효과 영향 등으로 비교적 빠른 증가가 예상되어 수입단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국내 경기회복 및 기저효과 영향 등으로 연간 21.7% 증가 전망
- 2021년은 수입이 수출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417억 달러 전망

